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멕시코 대통령과 대담

## 신재생에너지 수출길 모색

핵심 각료와 새로운 사업 논의  
전력인프라 사업 참여 요청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멕시코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고 7일 밝혔다.

조 회장은 멕시코 대통령과 멕시코 핵심 복지 정책인 '루랄 ATM 프로젝트' 등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복지금을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수혜자가 직접 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조 회장은 최근 효성TNS가 이 프로젝트에 ATM 8000대를 전량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조 회장은 멕시코 대통령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준데 감사를 전하고, 앞

으로 전력 인프라 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 멕시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멕시코 정부의 서민 삶 우선 정책과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효성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ATM의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새로운 사업 논의도 이어갔다. 핵심 각료들을 만나 효성의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멕시코 전력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에 운영중인 에어백 제조법인 2개를 소개하고 사업 성장 포부도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중공업그룹과 KT는 7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정기선 부사장(앞줄 왼쪽 세 번째), KT 황창규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

## 현대重-KT,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박차

5G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

양사 최고임원 참여, 내년계획 논의

현대중공업그룹은 KT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대표이사 부회장, 정기선 부사장과 KT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 등 양사 최고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현대중공업그룹과 KT가 지난 5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추진해 온 스마트팩토리 및 스

마트조선소 고도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사는 이날 공동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관리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로봇(호텔 어메니티 로봇) ▲AI(음성인식) 협동로봇 ▲KT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전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KT는 그간 5G 네트워크, 공동 상품화, 신규시장 공략, R&D(연구개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고 협업해왔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진 로봇 개발 기술, 선박 건조 기술과 KT의 5G 네트워크,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비상하는 현대車그룹

# 제품개발 모든과정 현지에서 中 사업수주 8억 달러 넘긴다

**HYUNDAI  
MOBIS**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전략'  
핵심부품 현지서 주도적 개발  
양산부품 설계·검증 논스톱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로 질적 성장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서 현대모비스가 자체 부스를 통해 총 26종에 이르는 전략 핵심부품을 전시하고, 로컬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억 달러 규모임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커진 것이다.

이날 현대모비스가 내놓은 5대 특화 전략은 ▲핵심기술 현지개발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전략'을 발표했다.

본사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현

지의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품질 향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꾀하면서, 기술과 품질경쟁력이 겸증된 글로벌 종합부품사인 현대모비스에 수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회사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억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중국 현지 수주 금액은 지난해 7억3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전세계 완성차업체 대상 핵심부품 수주 목표액이 올해

전 단계에 걸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현대모비스는 '중국구매센터'도 함께 신설해 현지의 협력사를 새로 개발하는 등 현지조달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중국내 부품사의 품질이 점차 향상되며 현대모비스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현지 협력사를 발굴해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유연한 재고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확보한 핵심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업과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제품별, 업체별로 세분화된 영업 전략을 수립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부품을 제안하는 맞춤형 영업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AR로 내비 더 생생하게… GV80부터 적용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HYUNDAI**

탑승자와 자동차 연결성 강화  
신용카드 간편결제 기능 통합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에 '고급형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7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기능 등이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했다. '고급형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향후 출시되는 제네시스 차종부터

적용한다.

이 시스템에 새로 적용된 주요 기술은 ▲AR 내비게이션 ▲차량 내 결제 시스템 ▲필기 인식 등으로 탑승자와 자동차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혁신적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AR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도로 영상을 모니터에 띄우면서 그 위에 주행 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해 안내한다.

기존 내비게이션은 저장된 지도를 띠워놓고 그래픽으로 주행 경로를 알려주는 식이어서 운전자가 복잡한 교차로나 고속도로 출구, 골목길 등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AR 내비게이션은 실제 도로 영상을 기반으로 안내해 이런 실수가 크

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차선, 전방 차량 및 보행자와의 거리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돋는다.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요금을 결제해야 할 때 차량 내 화면 터치만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결제 서비스 전용 스마트폰 앱에 차량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한 후 제휴 주유소·주차장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결제 안내창이 표시되고, 이를 터치하면 된다. 결제뿐 아니라 제휴 멤버십 사용, 적립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양성운 기자